

2014년 10월 20일 오늘의 아침편지

독서와 메밀국수
読書とソバ

독서는
読書は

메밀국수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
ソバを食べることと似ている

메밀국수는 잘근잘근 씹어서는 맛을
ソバをムシャムシャ食べると味は

제대로 알 수 없다. 단번에 먹어야 한다.
ちゃんとわからない。一度に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모든 책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全ての本が、そうだということができないが

대부분의 책은 메밀국수를 먹을 때의
大部分の本は、そばを食べるときの

요령처럼 단번에 읽는 편이 좋다.
要領のように一度に読む方がよい

- 시미즈 이쿠타로의 《교양인의 독서생활》 중에서 -
- 清水幾太郎の〈教養人の読書生活〉より -

* 독서를 메밀국수와
* 読書をソバと

비유한 것이 재미 있습니다.
比喻することが面白いです

한 순간에 몰입하되 맛있게 재미있게
一瞬に、没入しておいしく、楽しく

집중하라는 뜻일 듯합니다. 독서의 핵심은
集中する意味であるようです。読書の核心は

속독과 정독입니다. 국수발을 한 입에 빨아들이듯
速読と精読です。麺を一口で吸い込むように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속독능력, 그런데도
本を早く読むことができる速読能力、そうして

그 맛을 속속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その味を、隅々まで胸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

정독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精読能力があって、本当の意味の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知識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메밀국수

[명사] そば切り; そば.

잘근잘근

[부사] こわい物をしきりにかむさま: ぐちゃぐちゃ(と). [큰말] 질근질근.

씹다

[타동사]

かむ; 咀嚼する.

[속어] そしる; 人をあしざまに言う; けなす.

じっとおさえる.

빨아들이다

[타동사] 吸い込む; 吸引する.

속속들이

[부사] 奥の奥まで; すみずみまで; すっかり.

2014년 10월 21일 오늘의 아침편지

'나중에 하지'
'後にしよう'

나중에 하지,
後にしよう

그 나중애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その後が、永遠に来ないこともある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지금
精神と肉体が疲れてストレスが今

이 순간을 짓눌러도 '나중에 하지' 라는
この瞬間をつぶしても'後でしよう'という

말을 아껴라. '나중에 하지' 라고
言葉を惜しめ。'後でしよう'と

말하는 순간 가치와 행복은
言う瞬間、価値と幸せは

영원히 찾을 수 없다.
永遠に訪ねてこない

- 해암스님의 《마음 비우기》 중에서 -
- ヘアン師匠の<心を空にする>より -

* 가장 안좋은 말의 하나가
* 一番よくない言葉の一つが

"나중에 하지"라는 말일 것입니다.
"後でしよう"という言葉です

가장 안좋은 습관 또한 지금 할 일을
一番良くない習慣、また今することを

나중으로 미루는 일입니다. 말이 반복되면
後に伸ばすことです。言葉は繰り返されれば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習慣になり、習慣が繰り返されれば、その習慣が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自分の人生と運命を決定してしまいます

삶의 가치와 행복이 갈립니다.
人生の価値と幸せが分れます

짓누르다
[타동사]
やたらに押さえる[押さえ付ける].
(心理的に)抑圧する; 押さえつける.

2014년 10월 22일 오늘의 아침편지

'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 傷ついたヒーラー'

심리적으로 소화가 안 된 옛 상처는
倫理的に消化できない、昔の傷は

당시의 혼란을 상기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当時の混乱を想起させることがあるごとに

다른 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他のことに、ちゃんと集中できなくさせる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당시를
その記憶を浮かび上げる瞬間、我々はその当時を

다시 살아내듯 몸의 반응까지 기억해서
もう一度よみがえらせるように、体の反応まで記憶して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는데, 몸의 통증처럼
体が痛いと感じるが、体の鈍痛のように

마음의 상처도 사람을 질겁하게 만들어
心の傷も、人をびっくりさせ

무조건 회피하거나 도망치게
無条件に、回避したり、逃げたり

자극할 수 있다.
刺激したりする

- 박승숙의 《마음 똑똑》 중에서 -
- パク・スンソクの<心のスマート>より -

* 옛 상처.
* 昔の傷

지워지지 않고 늘 살아납니다.
消えずに、ずっと生きています

다시 가슴을 짓누르고 가는 길을 막아세웁니다.
もう一度胸を押さえて、進む道をふさぎます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치유자(Healer)가 필요합니다.
だから、我々にはいいヒーラーが必要です

가장 좋은 치유자는 '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一番いいヒーラーは' 傷を受けたヒーラー'

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소화시켜 같은 상처를 가진
です。自分の傷をよく消化させるように、傷を持った

사람에게 미소로 다가갈 수 있는 '운디드 힐러'.
人に微笑みで近づくことができる' ウォデットヒーラー'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에게
痛い傷を踏みしめ、立ちあがった人に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与えられる最高の名誉です

상기 (想起)

[명사] 想起.

질겁하다

[자동사] びっくり仰天する; ぶったまげる [속어]. [작은말] 잘겁하다.

회피 (回避)

[명사] 回避.

시게키 [刺激·刺戟] 발음 재생 매우중요

자극.

똑똑

[부사]

しずくなどが続けざまに落ちるさま; また, その音: ぽとりぽと...

小さいものが続けざまに折れる音: ぽきりぽきり; ぽきんぽ...

少し固いものを続けてたたくとき出る音: こつこつ; こ...

짓누르다

[타동사]

やたらに押さえる [押さえ付ける].

(心理的に) 抑圧する; 押さえつける.

명예 (名譽)

[명사] 名誉; 荣誉; 誉れ.

2014년 10월 23일 오늘의 아침편지

'일심일덕', 한마음 한뜻으로
'一心一德'、一つの心、同じ考えで

'일심일덕' (一心一德).
'一心一德'

'한마음 한뜻으로' 를 뜻하는 말이다.
'一つの心、同じ考え' を意味する言葉です

'주역' 에 이런 말이 있다. 두 사람이
'周易' にこのような言葉がある。二人が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心を合わせれば、その鋭さは鉄を

끊을 수도 있다. 마음을 갈이한
切ることもできる。心を合わせれば

말은 그 향기로움이
言葉は、その香りが

난초와 같다.
蘭のようだ

- 김성곤의 《리더의 옥편》 중에서 -
- キム・ソンゴンの<リーダーの事典>より -

* 두 사람이
* 二人が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一つの心、同じ考えになるのは難しいです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더 어려워집니다.
三人、四人ならさらに難しいです

늘 새로운 결심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ずっと、新しい決心と挑戦が必要です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면
だから、一つの心、同じ考えであつまれば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できないことはありません

향기도 좋습니다.
香りもよいです

날카롭다
[형용사]

鋭い.
(끝이) (物・刃などの先が) 尖っている; 鋭利だ.
(영민하다) (頭腦の働きなどが) 鋭敏だ; シャープだ.

쇠

[명사]

鉄; 真金 [아어(雅語)].

金属の総称.

(열쇠의 준말) 鍵; キー.

끊다

[타동사]

切る

(잘라 내다) (刃物で)切断する.

(계속된 행위를) (続いている行為を)やめる; 絶つ.

난초 (蘭草)

[명사]

ラン(蘭); ラン科植物の総称. [준말] 난.

(→붓꽃)

アイリス. (=아이리스)

옥편 (玉篇)

[명사] 玉篇; 漢字の字引き; 字典.

2014년 10월 24일 오늘의 아침편지

연인의 체취
恋人の体臭

일단 사랑의 관계가 싹트고 나면
一旦愛の關係が芽生えれば

여자는 상대방의 진짜 체취를 알아냈어도
女性は相手方の、本当の体臭をわかって

쉽게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연인을 둘러싼
簡単に彼との關係を切ることができない。恋人をめぐる

온갖 긍정적인 감정이 그의 냄새에 결부되어
あらゆる肯定的な感情が、彼の香りに結びついて

그와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냄새가
彼と關係があることにも、彼の香り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랑에
魅力的に感じるからだ。愛に

빠지면 애인에게서 더 좋은 냄새가
落ちれば、恋人にさらにいい香りが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私だけでなく、あなたの

후각도 바뀔 수 있다.
嗅覚も変えることができる

- 레이첼 허즈의 《욕망을 부르는 향기》 중에서 -
- レイチェル・ハーツの〈欲望を呼ぶ香り〉より -

* 갓난아이는 엄마의
* 赤子は、母の

젖가슴 냄새를 가장 좋아합니다.
乳房の香りを一番好みます

운동선수의 아내는 남편의 땀냄새를
運動選手の妻は、夫の汗の香りを

가장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면
一番好みます。その人を好きなら

그의 체취까지도 좋아하게 됩니다.
彼の体臭までも好きになります

비린내 나는 젖냄새, 땀냄새도
生臭い乳房の臭い、汗の臭いも

향기로 바뀝니다.
香りに変わります

싹트다

[자동사]

(식물의 싹이) 芽ぐむ; 芽生える; 芽吹く; 萌える.
(일의 기운이) 兆す; 芽生える; 芽ぐむ.

알아내다

[타동사]

(깨닫다) わかる; 悟る.
(밝히다) 明かす; 見つけ出す; 探し出す; 究める.

둘러싸다

[타동사] 取り囲む; 巡らす; 取り巻く; 囲む.

온갖

[관형사] (ありと) あらゆる; すべての; 万の [아어(雅語)].

결부 (結付)

[명사] 結び付けること.

赤子が母親の懷を弄る 발음 재생

갓난아이가 엄마품을 더듬다

비린내

[명사] 生臭いにおい.

20141025.txt

2014년 10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원배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ウォン베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기본에 충실하라!
基本に忠実に!

나는 늘 변화를 꾀하지만
私はずっと変化を図ったが

기본을 잊지는 않는다. 마음이 위축되면
基本を忘れない。心が委縮すれば

자세를 웅크리게 되고 반대로 해이해지면
姿勢を縮めるようになり、反対に緩めば

자세가 벌어진다. 내 셋업 자세는 서 있는듯
姿勢が広がる。私のセットアップ姿勢は、立っているように

편안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견고하다.
平安に見えるが、実はとても強固だ

기본이 튼튼하면 움직임이
基本がしっかりしていれば、動きが

훨씬 자유로워진다.
一層自由になる

- 최경주의 《코리안탱크 최경주》중에서 -
- チェ・キョンジュの<コリアンタンクチェキョンジュ>より -

* 세월호에 이어
* セウォル号に続いて

판교 참사까지를 경험하면서
板橋の惨事までを経験しながら

우리 사회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我々社会の基本をもう一度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

한편으론 웅크린 모습, 다른 한편으론 너무도
一方で、しゃがむ姿、もう一方であまりにも

해이해진 모습입니다. 스포츠는 물론 모든
緩んだ姿です。スポーツはもちろんすべての

안전관리에서 편안하면서도 견고함을
安全管理から平安でも、強固さを

유지할 때,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維持するとき、我々社会は以前より

20141025.txt

더 자유로워지겠죠.

さらに自由になるでしょう

韓国・京畿道城南市板橋テクノバレー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野外公演が開かれ、観客の転落事故が発生。

피하다

[타동사] 図[謀・計]る; もくろむ; 企てる; たくらむ.

웅크리다

[타동사] (寒さや恐ろしさのため) 身をすくめる[縮める]; しゃがむ; ...

だらける[たるむ] 발음 재생 (표제어:해이)

해이해지다

벌어지다

[자동사]

(갈라지다) 透き間ができる.

(관계가) 仲たがいになる.

(열리다) 開く; 広がる.

이어

[부사] 引き続き; 続いて.

2014년 10월 27일 오늘의 아침편지

어루만짐
撫でること

누군가를
誰かを

어루만진다는 것은
撫でることは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その人が望むことを、与えることだ

누구나 똑같은 어루만짐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誰でも同じ撫でることを望むのではない

어루만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누군가의
撫でることの一番基本的な形態は誰かの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意識の中に入ることだ

그것은 알아차림이다.
それは、気づきだ

- 에이미 해리스의 《완전한 자기긍정 타인긍정》중에서 -
- エイミー・ハリス〈良い自己肯定、他人肯定〉より -

* 어루만짐.
* 撫でること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とても美しい言葉です

단 한 번의 어루만짐만으로도
ただ一度の撫でることだけでも

꽁꽁 얼었던 몸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カチカチに凍った体も水から溶けだします

따뜻한 온기가 살갓을 타고 몸속 깊은
温かい運気が、肌を焼いて、体の中の深い

의식 안으로 소리없이 들어갑니다.
意識の中に音なく入ります

그것은 사랑입니다.
それが愛です

어루만지다
[타동사]
なでさする; なでる; さする.
いたわる; 慰撫する.
알아차리다

[타동사]

予知する; 見抜く; 感付く; 気付く; 見て取る.
(→알아채다)

완전하다 (宛轉—)

[형용사]宛轉としている; よどみなく調子がよい.
かちかちに凍る 발음 재생 (표제어:かちかち)

공공 열다

살갓

[명사]肌; はだえ[아어(雅語)]; 皮膚. (=피부)

2014년 10월 28일 오늘의 아침편지

교육도 발명이다
教育も発明だ

설계는 발명이다.
設計は発明だ

창조 행위의 초점은
創造行為の焦点は

우리 시대 여러 문제와의 소통이다.
我々の時代の、色んな問題との疎通だ

건축은 창조되는 순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建築は想像された瞬間、とても特別な方法で

현재와 연결된다. 발명가의 정신이 반영되며
現在とつながる。発明家の精神が反映され

기능적 형태와 외관, 다른 건물과의 관계,
機能的状態と外観、他の建築物との関係

건물이 들어서는 장소를 통해 우리 시대
建物が並ぶ場所を通じ我々の時代の

여러 의문에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다.
色んな疑問にそれなりの答えを提示する

- 페터 츠토르의 《건축을 생각하다》 중에서 -
- ピーター・ズントー〈建築を考える〉より -

* 교육도 발명입니다.
* 教育も発明です

가장 강력한 창조 행위입니다.
一番強力な創造行為です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것 이상의
人を作って、育てること以上の

값지고도 의미있는 창조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価値も意味もある想像の行為が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가 주변 풍경을 바꾸듯이
美しい建築物一つが、周りの風景を変えるように

잘 만들고 키워진 사람 하나가
よく作って、育てられた一人が

세상을 바꿉니다.
世の中を変えます。

초점 (焦點)
[명사] 焦点; フォーカス; ピント.

건축 (建築)

[명사] 建築; 普請.

들어서다

[자동사]

(안으로) 立ち入る; 入る.

(어느 시기에) (ある時期などに) 入る; 始まる; なる.

(집 따위가) (家などが) たて込む.

의문 (疑問)

[명사] 疑問.

나름

[의존명사] 名詞や動詞の下に付いて, ‘次第·なり’ の意...

2014년 10월 29일 오늘의 아침편지

삼년지애(三年之艾)

‘삼년지애’
‘三年之艾’

큰일을 도모하려면
大きな企画をしようとすれば

반드시 긴 안목을 갖고
必ず、長い目をもって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
沢山の時間と、情熱を傾け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 김성곤의 《리더의 옥편》 중에서 -
- キム・ソングンの〈リーダーの事典〉より -

* 삼년지애(三年之艾)
* 三年之艾

‘3년 묵은 썩’,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3年たったもぐさ’、‘孟子’に出た言葉です

고질적인 긴 병을 앓은 사람이 갑자기
慢性的な長い病気を患った人が突然

‘3년 묵은 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3年たったもぐさ’を求めるのが難しい

뜻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という意味です。‘準備した人’だけ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大きなことを企画できます

도모 (圖謀)

[명사] 企図; 企て.

옥편 (玉篇)

[명사] 玉篇; 漢字の字引き; 字典.

묵다

[자동사]

(오래되다) 古くなる; 古びる; ひねる; 廃れる.

(여관 등에) (宿などに) 泊まる; 泊まり込む; 宿る.

(본디 자리에) (元の位置・地位などに) とどまる; (学生(...

맹자 (猛者)

[명사] 猛者.

고질 (痼疾)

[명사]

痼疾.

長い間の悪い習慣. (=고질병)

2014년 10월 30일 오늘의 아침편지

조화로움
調和

세상사에서
世常事で

조화로움(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調和ほど重要なことはない

살다보면 원망도 생기고, 노여움도 나며,
生きてみれば、恨みもおきて怒りも出て

발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생긴다.
カッと席を蹴って出ることもおきる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버럭 성질을
瞬間の感情を、制御できずカッとする性質を

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だせば、深刻な状況を招いたりする

대인관계나 일처리에 조화로움은
対人関係や、仕事での調和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いくら強調してもし過ぎることはない

- 이용휴의 《나를 찾아가는 길》 중에서 -
- イ・ヨンヒュの〈私を探す道〉より -

* 하나로 모아지면 조화가 되고
* 一つに集まれば調和になって

둘로 갈라져 벌어지면 상극이 됩니다.
二つに分かれてしまえば、相克になります

조화는 화합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지만
調和は、和合とハーモニーに至ってなるが

상극은 갈라지고 부서지고 터지게 됩니다.
相克は、別れて碎けて避けておこります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것, 그래서
'私'をかけて'あなた'を満たすこと、すなわち

마침내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
遂に'私'と'あなた'がひとつになること

그것이 조화로움의 완성입니다.
それが調和の完成です

조화롭다
[형용사]調和している; 釣り合っている.

세상사 (世上事)

[명사] 世事; 世務.

노여움

[명사] 怒り; 憤り; 立腹; 腹立ち. [준말] 노염.

발끈

[부사]

(성내다) 激怒するさま: かつと; 憤然と; ぶんぶん.

(떠들다) 騒騒しいさま: がやがや; わいわい. [큰말] 발끈. [센말] 빨...

박차다

[타동사]

(발로 차다) 蹴飛ばす; 蹴立てる.

(물리치다) 跳ね返す; はねつける; しりぞける; ひじ鉄砲を...

추스르다

[타동사]

物を持ちあげたりして取り揃える.

(病氣やショックで) 力のない人が元氣を出す.

(ことを) うまく取りまとめる; 收拾してうまく御する.

버럭

[부사] いきなり腹を立てる[いきりたつ]さま: かつと. [작은말] 바락.

성질 (性質)

[명사]

性質.

生まれつき; 性合い; 氣性; 性分; 質.

(物の) 性状; 素質.

심각 (深刻)

[명사] 深刻.

상황 (狀況)

[명사] 狀況; 様子; ありさま.

초래 (招來)

[명사] 招來.

화합 (和合)

[명사] 和合; 仲よくすること.

상극 (相剋)

[명사]

相克.

五行が運行して互いに克つこと. (⇄상생(相生))

両者が互いに相容れない[いがみ合う]こと; (음식...

부서지다

[자동사]

(조각나다) 壊れる; 碎ける; めげる[방언]. [작은말] 바서지다.

(사개가) 蟻差しがそれる.

(期待や希望などが) 壊れる; 崩れる.

터지다

[자동사]

(싸움·사건 등이) (事が) 突発[勃発]する; 起こる.

(갈라져서) (塊をなしたものが) 割れる; (張り) 裂ける; 爆発(...

[보조동사] 用言の語尾 ‘-어’ · ‘-아’ などの後に付いて, 事...

2014년 10월 31일 오늘의 아침편지

뽕나무
桑の木

현재 우리나라에서
現在我が国で

가장 나이가 많은 뽕나무는 창덕궁과
一番樹齡が長い桑の木は、昌徳宮と

창경궁의 경계를 이루는 담 주위에 살고 있는
昌慶宮の境界をなす生垣の周りに植わっている

나무다. (천연기념물 제 471호) 키가 12미터나
木だ。(天然記念物第471号)高さ12mにも

되는 이 뽕나무는 조선의 치국(治國)을 상징한다.
なる、この桑の木は朝鮮の国政を象徴する

궁실의 부인들은 반드시 공상에 뽕나무를 심고
宮内の夫人は、必ず貢物として桑の木を植えて

잠실에서 누에를 쳐서 옷감을 짜야 했다.
蚕室でカイコを育て、生地を作らなければならかった

조선 초기에는 밤섬에도
朝鮮初期にはパン島にも

뽕나무가 많았다.
桑の木が多かった

- 강판권의 《선비가 사랑한 나무》 중에서 -
- 칸·판크우온의 <士人が愛した木>より -

* 잠실 뽕나무 밭.
* 蚕室、桑の木、畑

지금은 흔적도 없이
今は痕跡もなく

아파트 숲으로 변모했습니다.
アパートの森に変貌しました

상전벽해(桑田碧海). 그야말로
桑田碧海それこそ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바뀐' 형국입니다.
'桑の木の畑が青い海に変わった' 장소です

뽕나무가 있어야 누에로 비단(실크)을 얻고,
桑の木があって、カイコも絹を得て

비단이 있음으로 '실크로드'가 생겨나
絹があるから'シルクロード'が生じて

문명 교류의 길이 열렸습니다.

はっきり交流の道がつながりました

그 시작이 뽕나무입니다.

その始まりが桑の木です

뽕나무

[명사][식물] クワ(桑); 桑の木. [준말] 뽕.

경계 (境界)

[명사]

境界; けいかい; 境.

[불교] 境界.

담1

[명사] 塀; 垣.

공상 (貢上)

[명사][역사] 貢ぎ物として物を進上すること.

잠실 (蠶室)

[명사] 蚕室; 養蚕室; 飼い屋; 蚕を飼う部屋(へ...)

누에

[명사][곤충] カイコ(蚕); 蚕児(*한문투의 말씨).

선비1

[명사]

士人; 士.

昔, 学識はあるが官職につかなかった人.

学徳を兼ねた人に対する古風な敬称.

밭

[명사]

畑.

植物が自生して茂っている所.

ある物がいっぱい広がっている所.

형국 (形局)

[명사]

[민속] 風水地理または観相でいう形·場所(ば...)

(あることが生じたそのときの)状況; 局面.

形勢と局面.

2014년 11월 1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남형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ナミ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버려야 얻는다
捨てて得られる

대부분 버리지 못해
大部分は捨てられず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없다.
新しいことが、入ることができない

버리면 마치 죽을 것처럼 갖가지 것들에
捨てれば、まるで人が死んだかのように様々なことに

미련이 남는다. 하지만 진실로 열정을 다했다면
未練が残る。しかし、本当に情熱をつくしたら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도
転じて捨て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一度も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면 미련이 남는다.
熾烈に生き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未練が残る

미련없이 살아야만 버리는 것도
未練なく生きれば、捨てることも

과감할 수 있다. 이것은 물질,
果敢にできる。これは物質

정신 모두에 해당된다.
精神すべてに該当する

- 서정현의 《더 늦기전에 더 잃기전에》 중에서 -
- ソ・ジョンヒョンの〈遅れる前に忘れる前に〉より -

* 한 번 써보지 못한 머그잔은
* 一度も使ったことがないマグカップは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년 365일 커피를 담아
ずっとその場にありますが。1年365日コーヒーを注いで

마셨다면 다시 새로운 걸 살 수도 있습니다.
飲めば、再び新しいものをかうことができます

물질이든 마음이든 온전히 그것을 소비하고,
物質でも、心でも、完全にそれを消費して

내 마음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私の心が最善を尽くしたら、そうなる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 새로운 것을
のです。そして我々もまた新しいものを

구입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購入して、また新しい心で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再び始めればよいのです

들어서다

[자동사]

(안으로) 立ち入る; 入る.

(어느 시기에) (ある時期などに) 入る; 始まる; なる.

(집 따위가) (家などが) たて込む.

갖가지

[관형사] [명사] (가지가지의 준말) もろもろ(の); 種種(の); いろいろ(の); さまざま...

돌아서다

[자동사]

(뒤로) 後ろ向きになる; 背を向ける.

(등지다) 仲違いする.

(병이) (病勢が) 快方にむかう.

しれつ [熾烈] 발음 재생

치열; 격렬.

かかん [果敢] 발음 재생

과감.

해당 (該當)

[명사] 該当; 相当.

マグカップ (일본조어 mug+cup)

머그잔; 손잡이가 달린 원통형의 찻잔. (=マグ)